

부산 공공기관 ESG 채권 발행 확대하며 녹색금융 주도

주금공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110조 채권 발행

부산시를 비롯해 부산은행 기보 등도 사회적 책임 앞장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입력 : 2022-05-06 06:46:32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유정환 기자

부산의 공공기관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연계한 녹색금융에 앞장서고 있다. 녹색금융이란 환경 에너지 등과 관련한 금융활동을 통합적으로 일컫는 말로 환경개선, 금융산업 발전,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 형태를 일컫는다.

6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지역 공공기관들의 녹색금융의 형태는 ESG 채권 발행이 주를 이룬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개선과 포용금융을 통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10조 원에 달하는 ESG 채권을 발행했다. EGS 채권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선 등 사회적 책임 투자를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사용 목적에 따라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으로 분류된다. 주금공이 발행하는 ESG 채권은 사회적채권에 해당하며 분기별로 발행되고 있다. 매년 30조 원 이상 ESG 채권을 발행해 보증자리론과 디딤돌 대출 등 서민에게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자산 운용자금을 예치하거나 회사채에 투자하는 대신 ESG 채권과 ESG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SG 채권·펀드 투자 규모는 2020년 405억 원에서 지난해 4701억 원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BNK부산은행도 202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ESG 채권을 3500억 원 상당 발행하는 등 사회적 책임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 지역 상생형 친환경 금융상품인 ‘저탄소 실천 예·적금’과 ‘ESG 우수기업 대출’을 출시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했다. 또한 지난해 친환경 선박 도입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 선사의 회사채 인수를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3년 만기 ESG 채권을 발행했다.

한국남부발전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7800억 원 상당의 ESG 채권 발행에 나섰다. 2030년까지 필요한 총 15조 원의 투자비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드는 6조4000억 원을 ESG 채권으로 조달해 ‘2050 탄소 중립’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그린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는 탄소배출권 거래 확대, 기술보증기금은 녹색인증평가 등에 나서고 있다.

한편 지난달 글로벌 컨설팅 기관인 지앤이 발표한 국제녹색금융지수(GGFI) 평가를 보면 부산은 지난해 10월 (28위)보다 여섯 계단 오른 22위를 차지했다. 이 회사는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가능한 금융의 중요성을 고려해 2018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국제녹색금융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김종화 원장은 “부산시를 중심으로 주금공 해진공 거래소 기보 등 상당수의 기관들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